

월간 글로벌 철강이슈 (20년 1월)

한국철강협회 조사분석실 (bonghee.jang@ekosa.or.kr, 02-559-3558)

< Executive Summary >

◆ '19년 글로벌 조강생산 전년비 3.4% 증가

- '19년 글로벌 조강생산은 아시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증가해 '18년 대비 3.4% 증가한 1,869.9백만톤을 기록
- 반면, 제조업 침체를 겪은 EU와 일본의 생산량은 전년비 약 5% 감소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남
- '19년 글로벌 조강생산 1위는 중국(996.3백만톤), 2위는 인도(111.2백만톤)이며 한국은 '18년 대비 1계단 하락한 6위(71.4백만톤)
 - * 상위 10개국(백만톤, 전년비) : ①중국 996.3(8.3%), ②인도 111.2(1.8%), ③일본 99.3(△4.8%), ④미국 87.9(1.5%), ⑤러시아 71.6(△0.7%), ⑥ 한국 71.4(△1.4%), ⑦독일 39.7(△6.5%), ⑧터키 33.7(△9.6%), ⑨브라질 32.2(△9.0%), ⑩이란 31.9(30.1%)

◆ 중국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철강경기 위축 우려

-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춘절연휴를 연장하고, 인구 9백만명의 우한시를 봉쇄하는 등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있어 중국 및 글로벌 경제에 파급력이 클 전망
- 단기간 내 생산차질이 있지는 않겠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요둔화 및 철강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중국 철강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임
-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, 중국 철강수요 감소는 아시아, 중동을 비롯한 신흥시장을 넘어 전세계 철강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. 특히, 우리나라는 중국의 최대 철강 교역국으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

◆ 일본철원협회, '18년도 철강축적량 발표

- 일본의 '18년 신규 철강축적량은 13.8백만톤으로 전년비 22.4%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나타냈으며, '18년 누계철강축적량은 13.9억톤으로 1% 증가
- 일본의 '18년 철강생산은 91.6백만톤으로 전년비 1%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간접 수출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(△5.3%)해 신규 철강축적량은 2.5백만톤 증가